

플래시 취약점과 조작된 웹 사이트를 통한 원격코드 실행 분석 및 구현

황지만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Remote Code Execution through Flash Vulnerability and Crafted Web Site

Hwang Jiman

Sungkyun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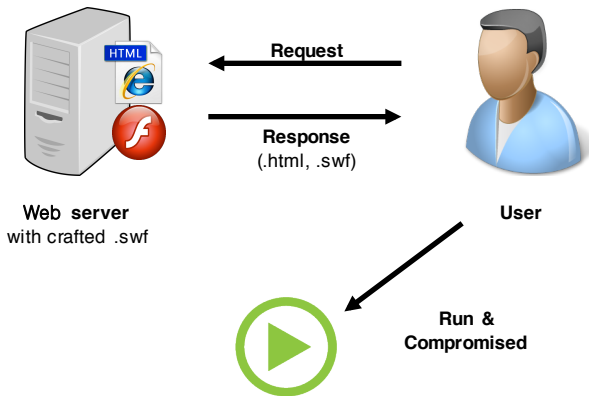
지도 교수: 최형기 교수님

연구실명: 인터넷 보안 연구실

개요

Flash player의 PC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즉, 거의 모든 PC를 깔려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Flash player의 취약점과 조작된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악의적인 해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위험하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의 link를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번 정령당한 PC는 그 피해가 해당 PC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를 공격할 수도 있고, DDOS로 악용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Flash player의 취약점을 심층 분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리를 밝힌다.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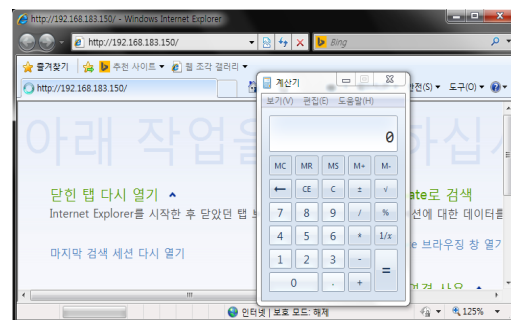
Web server	조작된 웹 사이트와 플래시 파일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User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가 악성 사이트인지 모른 채 접속하여 악성 플래시 받고, 실행 후 공격을 당하게 된다.
Html file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 페이지. 악성 플래시 파일을 사용자에게 보내고, 실행하게 한다.
Flash file (.swf)	이번 작품에서 다루는 플래시 취약점을 일으키도록 제작된 플래시 파일. Html 파일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해당 컴퓨터에서 공격자가 의도한 코드를 실행한다.

Internals

1. Heap영역 확보
 - 아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Heap공간 확보
 - Heap-spray
2. 전체 메모리 액세스
 - 모든 메모리(커널, 비할당영역 제외) 접근 가능
 - Pixel Bender Vulnerability
3. Shellcode 삽입
 - 공격자가 원하는 임의의 악성코드
4. Heap영역에 실행 권한 부여(DEP 우회)
 - 삽입된 Shellcode에 실행 권한 부여
 - Function Table, VirtualProtect() in WinAPI
5. Shellcode 실행

결과

- Windows 7 에서 접속
- Shellcode: 계산기 실행
- User측에서 Shellcode 실행 확인



결론

뉴스에서나 듣던 보안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Flash player의 취약점부터 시작하여 이를 발전시킨 뒤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단순히 링크를 클릭 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었으므로, 앞으로는 링크를 클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업데이트를 부지런히 해야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다.